

제1회 조계종 근·현대 사상사 학술세미나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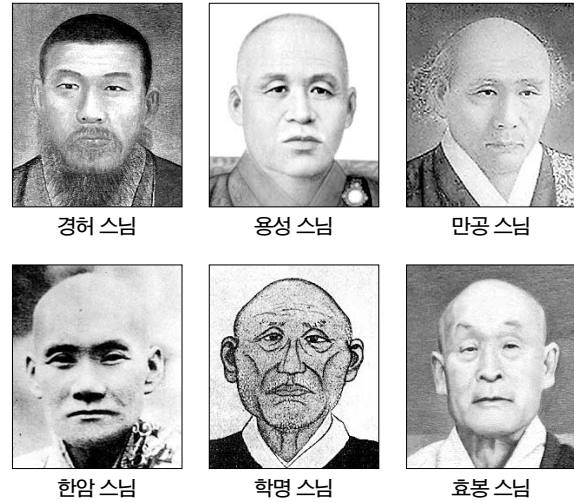
일제 침탈기에 불교의 전통을 수호하고, 선종을 드날리며 불교 개혁에 앞장섰던 경허·용성·만공·한암·학명·효봉 스님의 행장과 선사상을 조명하는 '제1회 조계종 근·현대 사상사 학술세미나'가 9월 17일 동국대에서 열렸다.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소장 최화경)가 주최하고 현대불교신문사가 공동 후원한 이번 학술발표회는 조계종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발전적 미래를 모색하기 위한 뜻 깊은 자리였다.

이날 발표회에서 고영섭 동국대 교수의 '경

허 스님의 조심학(照心學)', 보광 스님(동국대 교수)의 '용성 스님의 생애와 대각운동의 전개', 호탄 스님(동국대 강사)의 '한국 전통선교와 불조 해명의 계승', 혜거 스님(금강선원 선원장)의 '한암 스님의 생애와 사상', 김광식 부천대 교수의 '학명 스님의 불교개혁과 선종불교', 김방홍 보조사상연구원 기획실장의 '수선사 가풍의 계승 및 근대 간화선의 확립'이 발표됐다.

이 여섯 편의 논문을 바탕으로 선사들의 '선사상'과 '불교개혁 활동'을 재구성했다.



'말살시대'에 더 밝았던 법등

경허 이후 선불교 전통 '중흥기' 역경·선농일치 주장 일제극복

● **선사상**
 성리학이 통치이념으로 자리 잡은 조선 시대에 불교는 급속히 위축돼, 교학의 맥은 거의 단절된다. 반면 벽계종심·벽속지입·부용영관·서산휴정으로 이어지는 선맥은 면면히 이어져 평양언기·용암혜언을 거쳐 경허 스님에게로 계승된다.

경허 스님의 선법 수행에 있어서 핵심은 반조(返照)와 전정(傳精)이다. 즉 조로(照了)를 통해 비취진 심원(心源)을 전정(轉正)으로써 정밀히 관찰하는 것이다. 이는 "마음의 근원을 붙여켜 비취 마음의 공용을 오롯이 정밀히 하면, 비취 일대장교를 훑어보지 않아도 하더라도 대장경이 여기에 있다"는 스님의 말에서 잘 드러난다. 반조와 전정을 통해 스님은 조로심원과 이류종행(異類中行)이 하나 되는 삶을 지향했다. (고영섭 교수)

또 선·교일치 입장에 있던 경허 스님은 열불에 대해서도 긍정적이었다. 스님은 간화문의 성격(性)과 열불문의 일심불란이 다르지 않다고 했다. 이에 반해 경허 스님의 법을 이은 만공

스님은 간화선만을 선양했다. "참된 인간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참선 교육이 참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려 한다"고 말할 정도였다.

그런데 만공 스님의 간화선풍은 보수 스님 이래 전통적으로 강조된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스님은 "공부를 잘하고 못하는 문제보다는 이 공부밖에 할 일이 없다는 결정적 심심부터 세우야 한다"며 신심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이 점에서 스님은 보수 스님보다는 핵심 스님 쪽에 가깝다. (호탄 스님)

한편 한암·효봉 스님은 정혜종수의 입장에서 있었다. 한암 스님은 청년 승려 양성을 위해 설립한 수련소의 교육과정을 '반일(半日)참선 반일교학'으로 정했고(혜거 스님), 효봉 스님은 "내 문화에서는 정혜종수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효봉 스님은 "정중에 화두를 참구하는 사람은 정과 혜를 함께 닦는 것이다"고도 말하고 있어, 효봉 스님의 정혜에 대한 입장이 6조 혜능 스님이나 보조 스님과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김방홍 실장)

● **불교 개혁**
 구한말과 일제 지배기를 살았던 스님들은 왜색불교로부터 전통불교를 지켜내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다. 불교 개혁운동은 그런 절박함의 표출이었으며, 궁극적으로는 일제 식민 지배의 극복이라는 민족적 과제와도 직·간접적으로 맥이 닿아 있다.

가장 왕성한 활동을 벌인 인물은 용성 스님이다. 스님은 불교 현대화에 앞장서는 한편 실질운동에 불교계 대표로 참여하는 등 항일 운동에도 적극적이었다.

현대화를 위한 스님의 노력은 △불경 한글화(삼장역해·1921) △도시 포교(서울 가회동 포교당·1911) △참선 포교(대각사 시민선방·1929) △해의포교(만주 길림성 대각교당·1927) △어린이 포교(대각일요학교·1928) 등으로 나타났다.

선종불교와 관련해서는 학명 스님을 빼놓을 수 없다. 스님은 1923년부터 내장사에서 선종불교를 실천에 옮겼는데, 이는 불교 개혁의 일환이었다. 구체적으로는 농사를 통한 승려의 수행, 사찰 재정비, 혼

락공동체 건설의 성격이 함치된 양상을 띠고 있었다. 스님은 또한 선원규율을 복원·재정비하는 등 모범적인 선원을 만들고자 노력했다. 내장사에서 '실학'은 7년간 지속됐다. (김광식 교수)

만공 스님은 한국 불교 전통을 계승하며, 일제 사찰령의 간섭을 받지 않는 공간을 만들어, 수좌들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자 했다. 그 결과 선학원이 1921년에 탄생했다. (호탄 스님)

한암 스님은 1936년 출법한 조계종단의 초대 종정 자리에 올라 종단 수호에 힘썼다. 스님은 승가조직·선원규율을 제정하고 강원도에 승려 수련소를 설치(1936)해 젊은 스님을 양성해 미래를 준비했다. (혜거 스님)

한편 효봉 스님은 보조 스님의 정혜결사와 수선사를 모델 삼아 정법에 입각한 불교단체를 만들어 수행기풍을 정립하려 했다. 또한 이를 통해 보조 스님의 회통 및 화(和)의 정신을 계승하고자 했다. (김방홍 실장)

박익순 기자 info@buddhapia.com

우희종 교수의 불교와 생명과학 <48>



삶과 삶의 거리(2)

지난 편에 말한 것처럼 <장자(莊子)> '소요편'에 나오는 한 번에 구만리를 날아오른다는 봉(鳳)새나, 나뭇가지 사이를 날며 이러한 봉새를 비유한 작은 새나 똑같이 하늘을 날 뿐이다. 오직 우주에 대한 삶과 자신의 삶으로서의 인식의 전환과 이에 따른 전망(展望)의 차이일 뿐이기에 우리 모두는 삶과 삶의 거리를 좁힐 필요가 있다고 했다.

종종 우리 주위에서 듣는 것으로서 '그러야 부처님 말씀이지 어떻게 우리가 전하지 않는 한 전혀 소용없는 말 장난에 불과하다. 눈부시게 발전하는 생명과학의 지식도 그러한 삶이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없으면 지식을 위한 지식이 될 뿐

위해서 필요한 것은 열린 마음으로 자신의 인식의 지평을 넓히는 것일 뿐이다. 봉새나 작은 새가 우주 속을 날기 위해서 굳이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 나갈 필요가 없다. 어차피 이 하늘도 땅도 지구도 우주 안에 있기 때문이다. 용기와 열린 마음을 지니고 있다면 반드시 나의 삶은 변한다.

종종 우리 주위에서 듣는 것으로서 '그러야 부처님 말씀이지 어떻게 우리가 흉내내 내겠어' 라든지, '그러야 전문 학자 말씀인데 어떻게 우리가 알겠어, 그 말에 따라야지' 등의 안주하는 모습을 말려야 한다. 그것은 자신의 삶과 삶의 거리가 너무도 멀어 자신의

삶으로 전환되지 않는 삶은 무의미

'할 수 있다' 신념과 열린 마음 가져야

이다. 요즈음 생명과학이 던지는 사회 문제나 생태문제에 있어서도 어느 쪽이 옳고 그른가 하는 관점으로 바라보다기보다는 던져진 문제가 얼마나 우리의 삶의 문제로 접근되고 있는가의 관점에서 풀어야 할 것이다.

그렇기에 밖에서의 변화가 어떠한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 각각의 삶의 문제로서 풀어야 하며 이것을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앞만이 넘쳐나는 시대에 자신의 삶을 자신의 삶으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삶이 자신의 삶으로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나도 할 수 있다는 용기(勇氣)와 열려있는 마음(心)이 필요하다. 용기란 자신이 머무르고 있던 세계로부터 과감히 좀 더 넓은 또 다른 세계의 도약을 하기 위한 용기이다. 이러한 용기가 만용(蠻勇)이 되지 않기

삶은 여전히 작은 세계 속에서 감춰있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스스로 물어야 한다. 나는 지금 하늘을 날고 있는가? 지금 우주의 삶의 문제로 접근되고 있는가? 살고 있는가, 아니면 연화장에서 살고 있는가? 이 자리가 타락의 자리인가 아니면 이미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했는가?

내가 지금 어디 살고 있는가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이미 넘치고 넘치는 삶의 사회에서는 더 이상 무성한 식(識)에 끌려 다니며 무엇을 더 일러고 하지 말고, 자신의 삶과 삶의 거리를 좁히는 각각의 용기와 이에 수반된 열린 마음을 지니도록 항상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한다. 우리는 부처의 세계에 거머 태어날 수 있다.

서울대 수의과대학 면역학교실



그림 : 문병성

1면에서 계속

조사단은 '사자암 3층 석탑은 10세기 초 고려시대의 탑. 기단부 탑신이 8각 모양인 사자암 3층 석탑은 중요한 사료(史料)적 가치가 있고, 보물급 문화재지정 가치 있음'의 사유를 들어 전북문화재위원회에 지정문화재등록 신청을 했다. 하지만 이를 검토한 관련기관은 '탑의 훼손상태가 심하고, 1·3층 옥개석이 원형(原形)이 아닌 것으로 여겨져 지정문화재로 등록할 수 없다'며 부결시켰다.

이에 대해 사자암 3층 석탑을 조사했던 전문가들은 "비록 이번엔 발견된 옥

개석이 반쪽만 남아 있고, 탑의 훼손 정도가 심할지라도 충분히 보물급 가치가 있다"며 부결처리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탑의 기단부 탑신만 8각 모양을 한 석

인 익산 사자암에서 발견됐다는 것은 고대의 석탑연구에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갖는다는 것이다.

황수영 박사와 함께 조사를 참관했던 한 관계자는 "이렇게 귀중한 보물급 석

화재위원회는 총 20명으로 구성돼 있다. 그 중 석탑연구에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두 명 남짓에 불과한 실정이다. 때문에 보물급 석탑이 발굴·발견돼도 사정될 위험이 항상 잠복해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삼룡 박사는 "충분한 가치가 있음에도 지정문화재로 등록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더 우려스러운 점은 지정문화재로 등록되지 못한 개·보수비용이 전혀 지급되지 않아 문화재가 훼손돼 가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며 당국과 지자체의 관심을 촉구했다.

노병철 기자 sasaman@buddhapia.com

"훼손 상관없이 보물로 지정해야"

탑은 통일신라시대에 조성된 도피안사 3층 석탑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전문가에 따르면 이러한 석탑 형태는 고구려 팔각목탑양식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 고구려 목탑형태가 백제지역

탑을 알아보지 못하고 부결 처리한 문화재위원들의 자질이 의심스럽다"며 개탄했다. 석탑 전문 문화재위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이 같은 오류는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전라북도 문

제1회 낙태(유산)아 무보시 49일 천도 대법회

아빠, 엄마 저희에게도 새생명을 주세요

23개의 염색체를 가진 정자와 23개의 염색체를 가진 난자의 만남으로 46개의 인간염색체를 가진 뚜렷한 인간 그것은 바로 태아입니다. 이것은 홍당무도 토끼도 아닌 오직 인간일 뿐입니다. 나의 잘못된 행으로 비롯된 무서운 살생 그것도 바로 나의 자식을 살생한 과보를 그냥 무태만 하시겠습니까. 모두 참회 합시다. 그리고 허공을 떠돌고 있을 나의 어린 생명을 삶의 모습으로 되돌려 줍시다.



주지 지흥 합장

- ❖ 일시 : ● 입재 - 10월 14일(음) 9월 1일 오전 10시
 매주 목요일 (10월 21, 28일 11월 4, 11, 18일) 재봉행
 ● 회양 - 11월 26일(음) 10월 15일(동안결재)
 ※ 당일 대공양 보시를 받습니다.
- ❖ 기도비 : 무료
- ❖ 접 수 : 지혜정사 종무실, 수성 포교원 지혜선원
- ❖ 문의전화 : (054)975-7766, 0104 (053)752-0108
- ❖ 위 치 : 팔공산 한티재입구 기성상거리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기성리 1005번지

창법수행 정진도량 팔공산 지혜정사

정토불교 체육지도자과정 제2기 교육생 모집

선 카이로프랙틱, 운동처방, 선 내공체술

- 1. 본 교육연수원의 설립취지**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홍보하기 위한 출가수행자 및 법사들의 포교방편과 스님들의 자활력을 갖추어, 병고에 시달리는 중생구제와 더불어 보시금이나 불전에 의존하지 않고, 주며 베푸는 따뜻한 스님을 양성기 위해 **정형외과 의사와의 대화에서도 부끄럼이 없는 유능한 '카이로프랙터'**로서의 정토교육을 힘쓰고 있다.
- 2. 교 과 목 :** 카이로프랙틱 교정 이론 및 실기(해부학, 스포츠맛사지, 근육학, 운동처방 포함)
 디스크(목, 흉추, 요추, 선추), 오십견, 두통, 관절통, 편마비 등의 교정 방법을 미국 팔머대학의 교재로 확실히 교육시킴
- 3. 과 정 :** 2급과정 교육기간 2개월(총 108시간) 지도자 자격증 발급
 1급과정 2급과정 수료자로서 교육기간 1개월(총 54시간), 카이로프랙틱 마니 플레이어션
- 4. 모집방법 :** 2급과정 30명(선착순 마감)
 ● **지원자격 :** 출가수행 스님 및 법사, 불자
 ● **입학금 및 강의료 :** 출가수행 스님으로서 **승적증명서 제출자는 무료** (단, 식대 및 교재대 20만원)
 ● **원서접수 :** 2004년 9월 2일 ~ 9월 25일 까지
- 5. 입학일시 :** 2004년 10월 4일 (월요일) 13시
- 6. 원서교부처 :** 정토불교 체육지도자 교육연수원 교학과 042)635-8186, 8187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동 241-14 호산빌딩

사단법인 정토불교 체육지도자 교육연수원